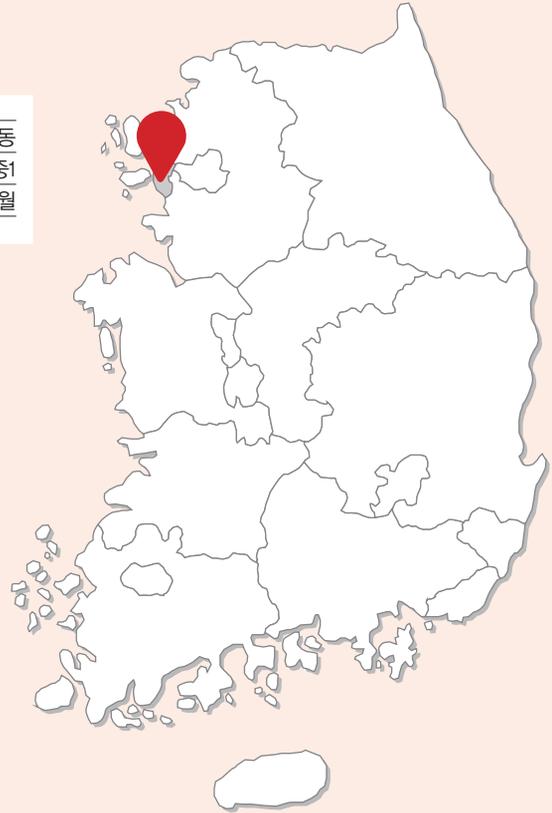


“〈내일교육〉으로 한국 교육 정보를 얻죠”

거주	인천 서구 경서동
자녀	중1
구독 기간	11개월



〈내일교육〉을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팔로잉하는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제 딸보다 한 학년 위라 소개하는 교육 정보나 책이 유용했어요. 〈내일교육〉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봤는데 알찬 교육 정보가 많길래 신청했어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아이가 현재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외국 거주 경험도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한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해요.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 진학을 모두 고려하고 있고요. 〈내일교육〉에서 한국 교육 정보를 얻죠. 제가 한국 학교와 대입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내용이

독자에게
물었다

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naeil.com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알차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구독도 연장했어요.

<내일교육>이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아무래도 대학 입시를 위해서 상식이 풍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뉴스를 보면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를 많이 다루진 않더라고요. <내일교육>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뉴스를 접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논술·토론 관련 기사가 있으면 유용할 것 같고요. @

Reporter's A/S

해외 거주 경험과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때문에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은 독자님께 시사 이슈를 다루는 '김한나의 이슈 콕콕'을 추천합니다. 주로 국내 현안을 다루지만 가끔씩 국제 정세를 쉽고 재밌게 소개하거든요.



본지 1146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_오른쪽으로 가는 유럽 원인은 먹고사니즘' 기사 참조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가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1159호

WEEKLY THEME_ 확 바뀌는 2028 대입 고교 선택 기준은?

"중학생인 아이가 국제학교에 다니는데 한국 대학 진학도 고려하고 있어요. 대입을 위해선 고교 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는 대입 제도에 관한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159호

2024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38_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김지혜 시야 넓혀준 <정치와 법>, 외교 정통한 언론인 될 거예요

"중이라서 입시 기사가 아직 멀게 느껴지긴 해요. 수시 합격생 기사는 학생의 삶을 보여줘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